# 트렌드 변화·플랫폼 다변화에 힘 잃은 장르극

## OCN·tvN·CJ ENM 등 부진 잇따라
## 흥행 보증수표 옛말…옛 영광 재현 못해
## 완성도 높지 않으면 주목 받기 어려워

'모범형사'

장르극 명가를 자부하는 OCN의 최근 연이은 부진은 장르극 자체의 침체로 확산했다.

터널에서의 타임워프, 소머즈도 울고 갈 청력을 가진 여형사, 사이코메트리, 엑소시즘까지 기막힌 소재로 시청자를 즐겁게 해준 장르극이지만 최근 안방극장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가끔 한둘 나온다 해도 흥행이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OCN의 경우 2017년 '터널'부터 이듬해 '손 더 게스트', '라이프 온 마스' 등 연달아 히트작을 내면서 강력한 팬덤을 등에 업고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에는 '보이스' 시리즈 정도를 제외하면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타인의 지옥이다'처럼 간간이 화제성을 얻은 작품은 있었으나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했다.

다른 채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KBS 2TV '닥터 프리즈너'와 MBC TV '검법남녀' 시리즈, SBS TV '아무도 모른다' 등은 배우들의 열연이나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소소한 호응을 얻었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최근 종영한 KBS 2TV '본 어게인', '99억의 여자', MBC TV '더 게임: 0시를 향하여' 등은 성적을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모습으로 퇴장했다. 방영 중인 JTBC '모범형사' 등도 아직 큰 반향을 부르지는 못하고 있다. 하반기 예고된 tvN '비밀의숲' 시즌2 정도가 기대를 모은다. 이에 최근에는 로맨틱코미디나 가족극 등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다.

이처럼 한동안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던 장르극이 힘을 잃은 원인으로는 크게 트렌드와 변화와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기대치 상승 등이 꼽힌다.

박지종 대중문화평론가는 16일 "유행은 변한다. 한동안은 장르극이 인기를 끌다가 이제는 복합적인 장르로 넘어왔다"며 "최근에는 예전의 작법에서 소재만 좀 바꾸는 형태, 그리고 표현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장르극이 처음 나왔을 때는 드물어서 신선했지만, 이제는 여러 방송국에서 선보여 식상하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완성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 주목받기 어려워진 환경이

'검법남녀'

돼다"고 짚었다.

넷플릭스 등이 기성 채널에서 연출하기 어려운 부분을 과감히 담아내는 등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경쟁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많다.

박 평론가는 "플랫폼 다변화로 표현의 수위가 확대하면서 기성 채널은 장르극보다 예전의 잘했던 부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 OCN뿐만 아니라 tvN까지 장르극에 강했던 CJ ENM 계열의 부진도 설명할 수 있다.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 겸 드라마평론가는 "OCN 채널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다른 채널과 차별화된 소재와 연출에서 오는 '오리지널리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tvN 역시 기존 드라마 문법에서 벗어난 것들을 많이 개발했

'손 더 게스트'

지만 최근에는 식상한 구성방식을 노출한다. 자기복제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하 평론가도 "워낙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획이 쏟아지다 보니 tvN, OCN도 기존 방송사 중 하나같은 느낌이 돼 화제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연합뉴스

'반도'

## '반도' 개봉 첫날 35만명
## 올 최고 '남산의 부장들' 경신

연상호 감독의 영화 '반도'가 개봉 첫날 35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16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반도'는 하루 동안 35만2926명이 관람했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남산의 부장들'의 기록을 6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다.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은 개봉 첫날 스코어 25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반도'는 '부산행' 이후 4년이 지나 폐허가 된 반도에서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블럭버스터다.

'부산행'에 이어 '반도' 역시 칸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받고 185개국에 선판매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극장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이경규, 카카오M서
## 권해봄 PD와 손잡고
## 디지털 예능 '찐경규' 도전

방송인 이경규

방송인 이경규가 카카오M에서 권해봄 PD와 손잡고 디지털 콘텐츠에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 '찐경규'에 출연한다.

16일 카카오M에 따르면 '찐경규'는 권 PD가 이적 후 처음 만드는 예능으로, MBC TV '황금어장', JTBC '비긴어게인'을 연출한 오윤환 제작총괄이 CP로 참여한다.

'찐경규'는 이달 말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영상 플랫폼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MBC TV '마리텔'에서 '모르모트 PD'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었던 권 PD는 "'찐경규'를 통해 이경규 선배님이 TV를 넘어 디지털 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최원영-최유화, MBN '나의 위험한 아내' 합류…김정은과 호흡

## 미스터리 부부 심리극…9월 방영

배우 최원영과 최유화가 MBN 신규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주연 배우로 합류한다.

'나의 위험한 아내' 측은 16일 두 배우의 합류를 알리며 김정은-최원영-최유화 등 주연배우 3인 라인업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결혼이라는 생활을 그저 유지하고만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부 잔혹극'을 표방한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과 살아왔다는 섬뜩한 깨달음과 동시에 '위험한 전쟁'을 시작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나의 위험한 아내'로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하는 김정은은 지성과 미모, 심성, 재력을 두루 갖춘 완벽한 아내 심재경 역을 맡았

왼쪽부터 김정은, 최원영, 최유화

다. 극 중 심재경은 남편과의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중 미스터리한 납치 사건에 휘말리며 모두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는다.

최원영은 훤칠한 외모와 유쾌한 성격으로 스타 셰프로 발돋움한 김윤철을 연기한다. 결혼 6년차에 아내가 가장 끔찍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절망과 권태를 느끼며 자신만의 도피처를 찾고자 일에만 매진하는 인물이다.

최유화는 김윤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진선미 역을 맡았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악바리 근성을 지니게 된 진선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대담한 캐릭터다.

대본은 '부암동 복수자들'의 황다은 작가가 집필하며 연출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힘쎈여자 도봉순'의 이형민 PD가 맡았다.

제작사 키이스트는 "주연 라인업을 확정 짓고 본격 촬영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오는 9월 믿고 보는 배우들이 완성시킬 명품 미스터리 부부 심리극의 탄생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가비빔밥,각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초밥,회세트
☎ 062)229-1008, 010-8572-0999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본위
☎ 062)574-8924, 010-9332-8184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 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 ( 영산포우체국 앞)
십전대봉탕, 쌍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엠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엠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 (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 (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가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남여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